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지역 대학병원 중 가장 먼저 지역주민 건강 살피

대전성모병원은 1956년에 병원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희망의원이라는 작은 진료소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이는 6.25사변으로 인한 상흔을 간직하고 절망하던 이웃들에게 의료를 통해 희망을 주고자 했던 것. 1969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총 4개 진료과에 입원실 21개, 수용 인원 46명의 병원급 규모를 갖추고 대전성모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현재는 지하 5층, 지상 9층으로 연면적 54,297㎡에 24개 진료과목에 671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2005년에는 중부권 최고의 병원이라는 명성을 찾기 위해 2년 6개월간에 걸쳐 총 300여 억원을 들여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마쳤다. 병동 증설 공사를 비롯해, 종합검진센터, 소화기내시경센터, 외래 등 새롭게 탈바꿈된 병원은 환자 및 보호자들이 첨단장비와 우수한 의술과 함께 내 집 같이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07년 'VISION 2010'을 수립, 단계별 PLAN을 실천하면서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봤다. 또한 이념과 사명, 핵심가치를 되새기며, 새로운 각오로 'VISION 2015'의 수립과 실현을 위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VISION 2015'는 환자들에게 만족과 감동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취지로 '사랑을 드리고 신뢰받는 여러분의 병원-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설정, 실천에 나섰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2004년과 2011년을 비교해 볼때 입원과 외래 모두에서 약 50%가 증가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중부권 최고를 지향하는 특화된 진료

대전·충청권 최초 심혈관센터 개설



1986년 순환기내과 진료를 시작으로 1998년 8월에는 대전·충청권에서 처음으로 심혈관센터를 개설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심장의 날'을 지정, 개최하여 심혈관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앞장서고 있다.

2009년에는 뛰어난 해상도와 3D 입체 영상 구현을 바탕으로 심혈관질환과 경동맥 및 말초혈관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독일 지멘스사의 최첨단 심혈관촬영기(중합혈관조영 촬영시스템)를 도입, 운용하고 있다. 현재는 한해 동안 심혈관조영술 약 1천 200례, 관상동맥 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 600례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등 지역의 대표 심혈관센터로 자리매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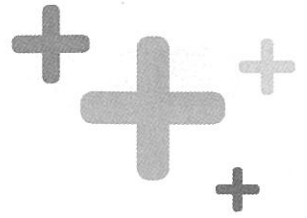
2010년에는 대전을 비롯, 충청지역에서는 최초로 3차원 입체 영상을 이용한 심방세동 전극도자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이 시술은 전선과 같은 가느다란 기구를 심장 근육에 밀어 넣고 이상맥박(부정맥)을 보이는 부위에 고주파 열에너지를 투사해 부정맥 현상을 바로잡는 고난도 치료법으로 가슴을 여는 수술(개흉술)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입원기간도 2~3일 정도면 충분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심방세동의 적응증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기준에 해당되는 환자는 시술이 가능하며, 2010년 시작으로 현재 심방세동 전극도자술은 약 100례에 해당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

수술이 어려운 고난도 수술 타병원서 전원 문의 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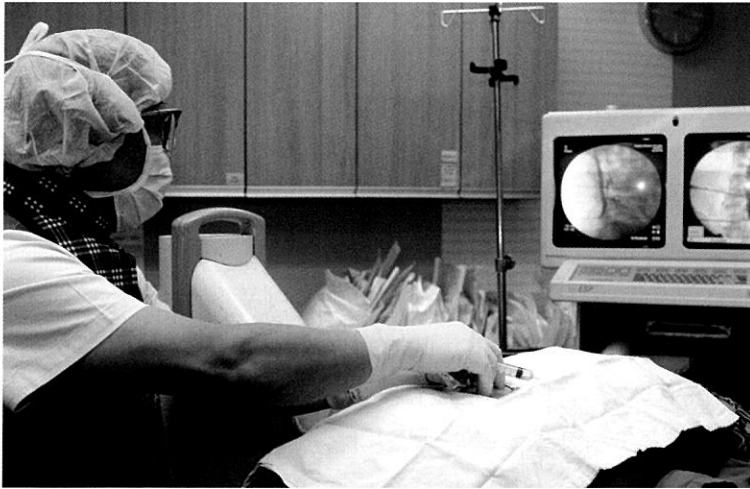
대전성모병원 정형외과는 각각의 세부 전공에 따라 특화되고 전문화된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세부 전공은 골반골 및 비구, 고관절 분야, 어깨 관절 분야, 무릎 관절 및 스포츠 의학, 척추질환 및 골다공증, 수부 및 상지, 미세수술 분야, 족부 및 발목관절 분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관절질환을 통합하여 진료하는 관절 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골반골 및 비구 골절, 인공 고관절 치환술은 탁월한 업적으로 대한골절학회의 평생회원 및 전 세계적으로 골절분야의 기초가 되는 AO Foundation의 대한민국 Faculty로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다.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에서도 초기 치환술 후 재치환술이 필요한 고난도의 수술의 경험도 많아 타병원에서의 전원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견관절 분야도 매년 500례 이상이 될 정도로 왕성한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기법 중 비교적 최근에 소개된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에 의한 견관절염에 대한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은 세계적인 의료기기 업체인 프랑스 토니어(Tonier)사에서 수술 결과에 대한 자료를 문의할 정도로 최신회전근개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견관절 회전근개 질환에 대한 관절 내시경 수술은 특별히 고안된 통증 조절 기법을 사용하여 환자의 수술 후 통증을 최소화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세계 최고권위의 견관절 국제전문학술지인 'Journal of Shoulder and Elbow Surgery'에 발표되기도 했다.



지역 최초이자, 최다 진료성적의 통증센터



대전성모병원 통증센터는 중부권에서 가장 먼저 통증치료를 시작해 가장 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가장 앞선 최신 치료 기법으로 시술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몇몇 병원에만 갖춰진 통증 치료실을 통해 중재적 신경차단술을 외래에서 바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근골격계 초음파의 도입으로 진단 및 치료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루었으며, 이 같은 시설적인 발전과 더불어 대전·충청권에서 최대, 최다의 진료 성적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각종 퇴행성 요통질환에 대한 신경 치료도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고 있다.

소아 류마티스 질환 및 소아 내시경, 지역 독보적

소아청소년과는 역사와 전통만큼이나 대전·충청지역민들로부터 높은 인지도를 얻고 있다.

면역결핍질환과 류마티스 질환은 서울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전성모병원이 유일하며, 전국에서도 몇몇 의사들만 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시술 중의 하나인 소아 내시경 시술도 가능하다.

또한 가와사끼병의 새로운 치료 지침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심한 폐렴이 생길 수 있는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의 연구와 치료에서도 국내에서 가장 선도적이다.

종양혈액내과, 고난도 치료법인 조혈모세포이식 1997년부터 시행

각종 종양환자의 진단 및 치료 계획수립과 항암제 치료를 전

문적으로 시행하며, 위암, 폐암, 대장암, 간암, 두경부암 등과 같은 고형암과 백혈병, 림프종, 빈혈 등과 같은 혈액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우수한 시설과 인력 및 경험을 필요로 하는 고난도 치료법인 조혈모세포이식을 1997년부터 시행하여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으며, 종양혈액내과, 외과, 방사선 종양학과, 마취 통증의학과, 호스피스완화의료팀 등이 암 센터 안에서 긴밀한 협진을 통하여 다양한 암의 진단, 치료, 증상 조절 등 보다 나은 의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재활의학과 의료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아

대전·충청지역에서 두번째로 개설된 대전성모병원 재활의학과는 서울올림픽 대전 지역 지정 물리치료실로 지정될 정도로 역사와 실력을 자랑한다.

대한재활의학회 홍보위원장과 고시위원으로서 대한재활의학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교수진과 함께 물리치료사들도 그 실력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일본 보바스기념병원 연수를 비롯해 국내에서는 4번째로 국제 보바스 강사 자격증을 획득한 이력을 갖고 있다. 또한 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 교육연수팀장, 한국보바스학회 대전광역시회장,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중부지회장,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전광역시회 총무이사 등을 역임하거나 활동하는 등 각 분야에서 전문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



호스피스, 중부권 호스피스의 새 이정표 세워

국내 최대·최고 시설을 자랑하는 대전성모병원 호스피스는 불모지나 다름없는 중부권에 새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암관리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호스피스 병동은 22개 병상과 2개 임종실, 경당 등을 갖췄으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및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 호스피스 팀이 말기 암환자들의 통증관리와 정서·영적지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별 가족 모임을 통해 사별 후 가족들이 상실과 이별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이러한 변화에 잘 대처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으로 지난 2009년에는 국가암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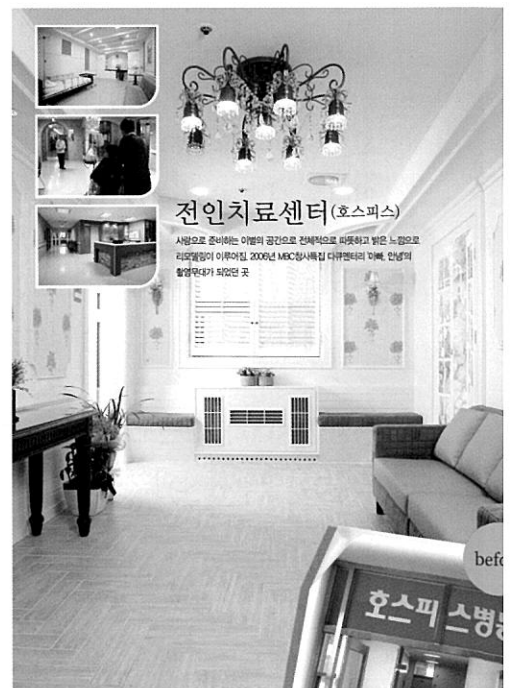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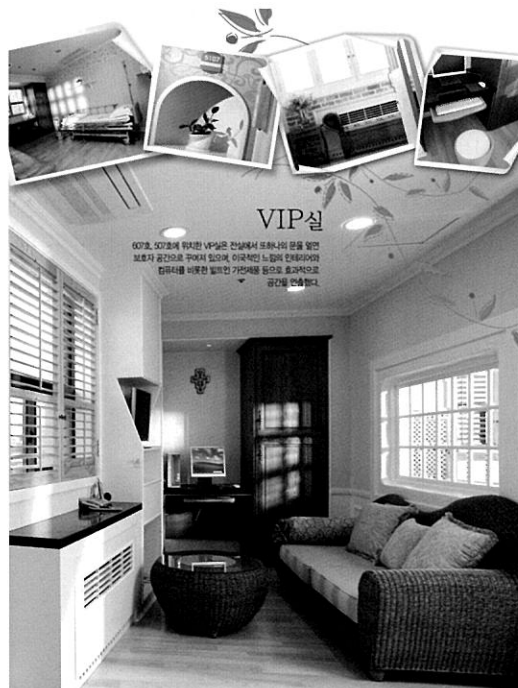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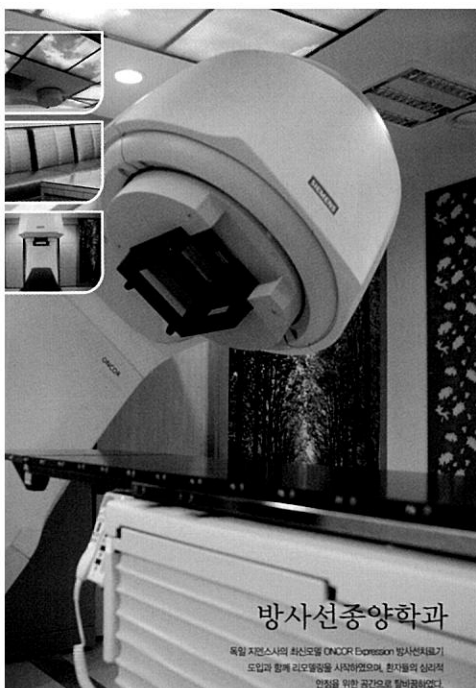
“첨단 장비, 서울 대형병원과 어깨 나란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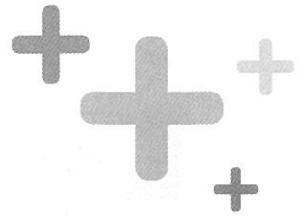
대전성모병원은 서울의 대형병원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첨단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다. 방사선 암 치료기인 선형가속기를 비롯,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장비인 PET-CT, 3.0T MRI, 첨단 심혈관 촬영기, MDCT 등이 이것.

국내 두 번째로 도입한 독일 지멘스사의 최신행 선형 가속기 160

다엽콜리메이터(160MLC)는 영상유도 치료와 3차원 입체조정 치료와 강도조절 기능과 함께 시간 개념을 적용한 4차원 호흡동조 치료가 가능하다. 4차원 호흡동조 치료는 치료 부위가 환자의 호흡에 따라 움직일 때마다 호흡주기에 맞춰 방사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자동 조절하는 기법이다. 특히 폐와 간 등에 발생한 암세포 치료에 효과적이다. 또한 0.5mm 이내의 정확도를 보이는 초정밀 치료기로 주변 정상조직의 피해를 최소화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3테슬라 MRI는 짧은 시간 내에 고해상도의 전신 촬영이 가능한 최첨단 장비다. 특히 뇌신경, 근골격, 척추, 혈관 및 복부질환 등의 정밀 영상 진단을 부위별 검사를 따로 진행할 불편함이 없이 한번에 부위별 코일을 결합하여 짧은 시간 내에 전신 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국내에 도입된 기종 중에서 환자 촬영 공간이 가장 넓고 소음도 적어 폐쇄공포증이나 소아 환자에게 특별한 전 처치 없이도 불안감을 완화시켜 안락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전인치료 실천”

대전성모병원은 이념에 따른 사회봉사에도 매우 적극적이다. 먼저 환우들을 위한 원목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종교를 초월해 영적 보살핌이 필요한 환우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사제·수도자들이 상담, 방문기도나 수술 전 기도 등을 통해 위로와 격려, 마음의 평화를 얻도록 돕고 있다.

1995년부터 시작된 성모자선회는 매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50여 명의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후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무의촌 의료봉사, 교직원 헌혈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의료사회사업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을 위한 협약을 갖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새터민이 우리 사회에 조기에 정착함은 물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입원 및 외래 치료, 종합건강검진 등을 받을 경우, 진료비 전체 금액 중 본인부담금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자타공인 단일공 복강경수술의 중심지

최소침습수술, 즉 표시나지 않게 하는 수술은 국내 최고를 자부한다. 대전성모병원 최소침습-복강경수술센터의 단일공 복강경수술은 그 실력면에 있어 이미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충수절제술부터 담낭절제술, 탈장수술뿐만 아니라 대장·직장암의 수술에 이르기까지 외과영역 전역에 적용되고 있는 이 수술법은 현재로서는 복강경수술의 가장 발전된 형태의 수술이다.

2012년 1월말 기준으로 1천례 이상의 수술을 시행했으며, 정규수술은 물론 응급 상황 및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의 환자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어 관련 학회 등에서도 많은 관심과 소개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2011년에는 이중 단일공 복강경 대장·직장암수술에



대한 논문을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인 'Annals of Surgery'(전세계 외과계열 SCI 논문 총 167개중 인용지수(Impact factor) 1위)에 게재되기도 했다. 이 논문은 직장암을 포함한 영역에서의 단일공 복강경수술에 대한 최초의 논문이라는 의미를 가져 그 가치를 더한다.

2012년 4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제45차 대한대장항문학회에서는 학술상(우수 국제논문상)을 수상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하였다.

단일공 복강경수술은 배꼽에 최소한의 절개(적게는 1cm, 크기는 4cm 정도)만을 통해 수술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복벽의 절개만을 최소화할 뿐 복강 내에서의 수술내용이나 범위에 있어서는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수술이다.

최근에는 최소침습 수술법을 더욱 발전시켜 충수염(맹장염)을 포함한 일부 양성질환(장유착 등)에서 0.5cm 단일 절개만으로 수술을 시행, 그야말로 흉터를 찾아보기 어려운 경지에 이르게 됐다. 또한 항문에 가까이 위치한 직장의 병변(직장암 포함)에 대해서는 항문을 통한 단일공 복강경수술을 시행함에 따라 복부를 포함한 어느 곳에도 수술의 흔적이 전혀 남지 않는 획기적인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미래형 수술의 출발점이라 말할 수 있다.